

삼례문화예술촌, 프랑스 예술 선보인다

‘프랑스와 예술의 혁명’ 특별전시... 19~20세기 화가·문인 저술·그림·조각품 등 227점 전시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삼례문화예술촌이 일부 전시관의 문을 연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이 직접 운영하는 삼례문화예술촌은 현재 시설 개선 및 콘텐츠 구성을 위한 사업착수를 위해 휴관 중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설 개선 및 신규 콘텐츠 도입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6일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메인 전시관 내 ‘프랑스와 예술의 혁명’ 특별전시를 시작했다.

아폴리네르와 그의 연인 마리 로랑생, 나폴레옹과 조선 서해안 항해기, 근대 프랑스 화가들의 반란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19~20세기 프랑스 화단과 문단에서 교류하던 화가와 문인들의 저술과 그림, 조각품 등 227점을 전시한다.

삼례문화예술촌의 이번 전시는 그림책미술관의 ‘요정과 마법의 숲’, 책박물관의 ‘문자의 바다’ 전시와 함께 삼례의 3대 특별전시로 각 광장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삼례문화예술촌을 아끼고



지역민들은 물론 전국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 온 삼례문화예술촌이 일부 전시관의 문을 연다. 완주군은 6일 완주방문의 해를 맞아 메인 전시관 내 ‘프랑스와 예술의 혁명’ 특별전시를 시작했다.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이번 전시가 작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관 개관과 함께 공연장에서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상설공연이 열린다. 다

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공연자와 관람객 모두가 거리를 두고 즐길 수 있는 연주곡들로 예술촌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감성 여행 도시의 낭만을 선보일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손성욱 작가 ‘내몽골 말 사진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서 5월 2일까지 진행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5월 2일까지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1층)에서 손성욱 사진작가의 ‘내몽골 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손성욱 작가는 지난 2000년 군산전국사진 공모전으로 입문 후 2019 대한민국 사진축전에 출품하는 등 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2019년 몽골 패상초원에서 촬영한 현지의 말과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모아 전시했다.

손성욱 작가는 몽골 평원의 역동적인 말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들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답답한 일상에 해방감을 선사하고, 역경 극복 의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시는 시민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전시참여자 공개모집을 통해 박물관 1층에 위치한 시민열린갤러리를 시민 참여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시참여자 공개모집에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개월 가량의 전시 기회 제공과 함께 리플렛 등 전시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전시 작품과 전시관 전경 등을 담은 동영상도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온라인 전시도 병행 운영해 시민작가들의 홍보 채널로서의 역할을 특색 있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1년 중 손성욱 사진전에 이어 한지 공예, 서예, 서양화, 문인화, 일러스트 등 다양한 장르의 시민작가 작품을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고창·부안 함께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콘텐츠 공동제작·배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고창문화의전당, 부안 예술회관과 ‘공연 콘텐츠 공동제작·배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예술단체 공연 콘텐츠 공동제작 배급 프로그램’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른 협약이다.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창작 활동이 위축된 시기에 문예회관과 지역 예술단체가 예술로 공존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각 기관은 협약에 따라 ▲예술단체의 정보공유와 교류 ▲공동으로 작품 기획·제작·투자 ▲공동명의로 지역별 순회공연 개최 ▲상호 필요한 벤치마킹 협조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문연으로부터 국비 1억3000만원을 지원받아 동화농민혁명이라는 전북의 특화된 소재를 가지고 창작 태권 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라는 브랜드 공연을 본격적으로 제작한다.

‘태권유랑단, 녹두’는 조선 시대로 간 태권유랑단이 고창을 시작으로 부안, 전주로 이동하며 동화농민혁명의 정신을 이해하고 분투한다는 역사 판타지 창작극이다. 국악을 기반으로 태권도, 농악, 댄스 퍼포먼스 등을 조합해 구성한다.

오는 11월 전당을 시작으로 고창문화의전당, 부안예술회관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공연하며, 전북 지역 예술인 70여명이 참여한다.

전당 박흥재 문화사업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각 시·군의 균형 있는 문화예술 발전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지역의 문예회관들과 상호협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고창문화의전당, 부안예술회관과 ‘공연 콘텐츠 공동제작·배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제공)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로(路) 모집

전북문화관광재단 내 예술인복지센터는 오는 19일까지 ‘2021 전북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에 참여할 도내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는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장을 위해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개발하고, 기업·기관(마을)과의 협업을 통해 직무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 예술인 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전국 광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으로 재단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는 약 3억1,5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도내 예술인 40명(리더 8명·참여예술인 32명)과 기업·기관(마을) 8개 곳을 모집·선정 후 예술협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리더·참여예술인)은 도내 거주자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경우 신청 가능하며, 기업·기관(마을)은 도내 소재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이전 대표이사는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路)’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도내 참여기업·기관(마을)에는 예술과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창의적 사회 토대를 마련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와 문예진흥팀 예술인복지지원센터(063-230-7434, 744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